

2022 열린인생 2.

혼적 신앙의 함정 (자아를 말씀으로 다루지 않음)

1.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과 가장 큰 구별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혼과 육에서도 일어난다. 성령이 자아를 조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옛 자의 습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 자아가 있으면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9:59-62]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59절)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쫓는다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을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신다.(60절)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로 허락하지 않는 패륜적 스승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생각과 이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말씀 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다. 그 근거가 '먼저'라는 단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보다 우선으로 하는 '먼저'의 자아를 다루기 시작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으나 결국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때 가토 유다 처럼 '혼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자아의 음성에게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의 자아는 아직도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61을 보라.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한다. 무슨 말씀인가?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는 일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62절에 여지를 주지 않는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목할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표면적인 겉모습은 제자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혼과 육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모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사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2. 하나님의 사람은 땅과 하늘의 연결 통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다시 연합되었다. 땅은 하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 하셨다. 죄로 인해 하늘의 통치를 벗어난 땅은 고통이었고 무법천지였다. (무정부 상태)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쓸모 없는 땅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늘의 통치를 받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땅으로 변화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자녀의 영을 통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달렸던 하늘문이 열림으로 내 인생이 다시 변화된 인생, 쓸모 있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3. 열린 인생은 성경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된 존재임을 신28장을 통해 보여준다

예수 믿고 하늘문이 열려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의 영역의 파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변화는 실체가 된다.

신명기 28장을 통해 열린 하늘문이 있는 인생과 닫힌 하늘문이 있는 인생을 비교해보자.

'열린하늘'

[신명기 28: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열린하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혼의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다. 죄된 자아의 파쇄는 단순히 자기 성찰과 발전과 성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땅의 축복을 말씀하신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자아의 파쇄를 자기성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은 다분히 종교적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 땅의 축복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땅에서 실체가 된다.

[신명기 28:1-11]

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다.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말한다. 이미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는다. (성읍, 들은 대조된 공간이다. 이 사람 자체가 열린 하늘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4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축복은 가문이 지켜진다는 것이다. 생명의 잉태는 그래서 중요하다. 출산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았는가?

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양식을 의미한다. 양식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 사는 날 동안 대적과 원수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무리와 원수 마귀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강력한 보호의 복이다. 오늘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생각해 보았는가?

8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 네 창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은 재정의 복이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일터의 재정의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재정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는가?

9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 놀라운 말씀이다. 이 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열린 하늘문이 있구나를 알게 된다고 한다.

: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위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 가장 중요한 터전의 복이다. 터전은 안정감을 말한다. 안정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다.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의 복이다. 약속의 땅이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 얼마나 구체적인가?

‘달한하늘 = 늦하늘’

[신명기 28:23-24] 23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늦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28장에 열린 하늘문의 인생과 다른 달한 하늘문 늦 하늘의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에게 하늘이 닫혀 있을까? 15절이 답이다.

[신명기 28:1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혼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혼적인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인생을 보여준다. 늦 하늘이 되었다. 짝 막혀 있다는 것이다. 영이 없는 혼의 인생을 말한다. 결국 자기가 주인되는 인생을 말한다. 결과를 보자.

[신명기 28:16-19] 16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달한 늦 하늘의 땅은 결국 ‘저주’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축복이 저주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지키라

이제 생각이 아니다. 혼적인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볼 때, 영적인 삶 (기도, 말씀, 예배)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보일 것이다.

그 자아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의 영적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바로 그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다.

이제 내 머리 위에 있는 늦 하늘은 내 안의 혼적인 자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쇄 될 때 깨어진다. 그리고 열린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린 인생이 된다.